오송 참사 1주기 추모재…"다시는 비극 없길"

조계종 사노위, 7월 15일
헌향·헌화로 극락왕생 발원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지몽 스님 "안전 사회 구축"

오송=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사노위 스님들이 추모 기도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와 관련된 어떠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는 재난이 아닙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던 어머니와 동료들, 결혼한 지 2달 된 가장, 휴일에 출근하던 30대 청년, 친구들과 여행으로 버스를 이용한 20대 딸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14명의 시민이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들어찬 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하는 추모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7월 15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현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추모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위원 혜도·덕인·시경·주연·동신·해륜 스님과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앞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추모 발언에 나섰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갑작스런 참사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상규명"이라며 "피해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전날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동승자 형의 묘비 앞에서 양꼬치와 소주 한 잔을 주며 혼자 살아나와 미안하다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고, 책임자들 처벌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왔다"며 "국가가 시민의 목숨을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오송 참사를 잊지 말고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에 이어 사노위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추모 기도가 시작됐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외는 동안 참석자들은 영단에 헌향·헌화하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영단 앞에선 유족들은 비통함에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참사 일년을 맞은 오늘 슬픔과 아픔에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안전한 사회가 돼 더 이상 안타까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신뇨엔, 한국불교 발전기금 전달 잇따라

7월 16 · 17일, 동국대 · '천년을 세우다'에

일본불교 종단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국원)이 7월 16일 서울 동국대 4층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신뇨엔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동국대 인재불사를 위해 1억원 발전기금 전달을 약정하고 매년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신뇨엔은 장학금 전달을 통한 인재불사와 지역 봉사활동으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곳으로 안다"며 "큰 기부금 쾌척에 감사하고 종립대학으로서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신뇨엔도 동국대처럼 청년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부금이 청년불자 양성뿐만 아니라 불법 포교에



도 앞장 서는 동국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과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원장, 상임이사 정경 국원, 사회교류부장 상환 국원이 함께했다.

한편, 신뇨엔은 7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더프라미스, 대전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

정방마을 이재민 35가구에
연고 등 건강 · 위생 용품 전달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7월 12~1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 이재민 35가구에게 건강·위생 구호물품을 지원했다.〈사진〉

7월 10일, 대전에는 시간당 60.5㎜ 폭우가 내렸다. 새벽 4시경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은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망가진 제방은 긴급공사가 진행돼 임시방벽이 설치됐고, 주택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재민 35가구는 대피소가 마련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미국 모금 플랫폼 Give2Asia(현 every.org)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약 2800달러(한화 약 400만원)로 이재민 35세대(65명)들에게 건강·위생 용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대피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고, 파스, 모기기피제, 활력액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더프라미스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물품을 구매해 당일 이재민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초등학교 건립 후원 협약

익명 후원자 1억 5000만원 약속
교실 · 도서관 · 기자재 지원 사용



신축교사 · 도서관 건립부지 조감도.

지구촌공생회가 익명 후원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 초등학교와 도서관 건립에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와 익명 후원자는 7월 12일 전북 군산 은적사에서 '캄보디아 초등학교·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익명 후원자는 총 1억5000만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후원금은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바세데스군에 위치한 쁘레이 클롱초등학교의 신축 교실, 도서관 건립과 기존 교실 보수, 기자재 지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후원학교는 캄퐁스푸 주교육청에 추천 의뢰,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과 후원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쁘레이 클롱초등학교에는 현재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99명이 재학 중이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어 신축 교실이 절실하다.

클롱초등학교에 건립될 신축교사는 56㎡(7m×8m) 규격의 교실 5개다. 교무실과 3~6학년 교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서관은 현재 가건물 형태의 유치원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다. 기존 5개 교사는 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할 방침이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익명 후원자는 "어렸을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다"며 "전 세계 아이들이 나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길 바라며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8월 1일부터 건립 공사에 착수,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내영 기자

나누며하나되기, 취약계층에 자비나눔

7월 17일, 충주시청서 전달식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 스님·천태종 사회부장)는 7월 17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3000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용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나누며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조길형 충주시장, 신호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물품은 △어린이 영양제 2종 △효소 건강 기능식품 △KF마스크 △다목적 장갑 △손 소독제 △물티슈 등이다.

같은 날 오전에도 나누며하나되기는 충북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3000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시설, 쪽방촌 지원 시설 등 50개 시설에 방문 또는 택배로 3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시상식…대상에 김민재

7월 12일…76점 수상작 선정
"공모전 신청, 공덕 짓는 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 스님,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27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김민재 보문고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라미타는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경 공모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파라미타에 따르면 올해 사경 공모전에는 전국 2만여 어린이·청소년이 참가했다. 1차 자체 심사에서는 628점이 본선에 올랐다. 5월 29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문종 스님, 전 한국사경연구회장 행오 스님,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76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제27회 사경 공모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김민재 보문고 학생 등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우리 학생들이 사경 공모전에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사경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생긴다. 공동체가 행복해지리라는 일념으로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련, '제2차 조직 리더 워크숍·법등장 연수'

7월 13~14일, 서울 석불사서
영캠프 주요프로그램 실습 등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7월 13~14일 서울 석불사에서 '제2차 조직 리더 워크숍 및 법등장 연수'를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에는 소그룹 리더로 역할을 맡은 영캠프 예비 법등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 불자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경험하며 영캠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워크숍 개최를 지원한 포교원과 석불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영캠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법등장들이 올해 영캠프에서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즐거운 영캠프를 꾸려갈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교불련, 교수로 전법 영역 확대한다

6개 지부 모여 '전법위' 구성
교수불자회 창립 · 재창립 지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 이하 교불련)가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생은 물론 교수 전법까지 포함하는 '캠퍼스 전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캠퍼스 전법운동'은 대학생 전법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학별 교수불자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불련은 기존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등 전국 6곳에 두고 있는 권역별 교불련 지부조직의 역할을 확대해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법위원회는 교수 불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최근 들어 전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캠퍼스 내 불교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불련 지부장 소임을 맡은 한 분 한 분이 '권역별 전법단장'을 맡아,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동 지원은 물론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스카우트와 '캠핑'하면서 불교 배우자"

7월 12~13일, 영동 반야사서
기차여행 · 트레킹 · 텐트 경험



청년불자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불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 스님)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영동 반야사에서 '2030 청춘캠프-우리끼리 Train, Trekking, Tent'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불교동아리, 청년회 법우,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차여행, 트레킹, 텐트 생활 등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모여 계획과 꿈을 공유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다연 학생(23, 한양대)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며 "이런 행사가 또 열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인 학생(20, 성균관대)은 "부모님의 권유로 참가해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보니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길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최현기 불자(31, 달마사청년회)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